

2024. 5. 1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창조산업과

창조산업정책팀장

이순영

2133-9210

미디어산업팀장

심석호

2133-9216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담당자

한재윤

2133-9227

서울특별시청, 황금빛으로 물든다..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기념 점등 동참

- 5.1(수) 20시부터 60분간, 서울특별시청사에 아시아인을 상징하는 금색 점등
-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(5월) 첫날, 전 세계 랜드마크에서 동시 점등진행
-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인, 한국계 미국인 노력과 성취 축하...교류·협력 확대
-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, 다양한 문화산업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의 성취와 문화적 다양성 지지

- 5월 1일(수) 저녁 8시부터 60분 동안, 서울특별시청이 황금빛으로 물든다.
- 서울시는 비영리법인 골드하우스(Gold House)의 요청으로, 아시아-태평양 문화의 달을 기념하고 A100(영향력있는 아시아 태평양 리더)에 선정된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들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아시아인들의 상징 색상인 '금색'을 서울특별시청 외벽에 점등한다고 밝혔다.
 - 골드하우스는 아시아 정체성을 보호하고 문화계 다양성을 후원하는 비영리단체로서,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(24.3) 다니엘 대 김 배우도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. 골드하우스는 매년 영향력 있는 아시아-태평양 리더 100인을 선정해 발표한다.
 - 2023년 A100에는 뉴진스(서울시 홍보대사)가 선정되었고, 2024년 A100에는 방시혁(하이브 의장)과 스티븐 연(한국계 할리우드 배우) 등이 선정되었다.

-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의 첫날, 한국에서는 ‘서울특별시청’에 황금빛 점등이 진행되고, 미국 타임스퀘어 빌보드,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, LA시청사, 하와이 호놀룰루 시청사, 캘리포니아 의사당, 캐나다 밴쿠버시 BC Place 등 북미 지역 각 도시의 랜드마크도 금색 조명 점등에 동참해 아시아-태평양 문화의 달을 축하한다.
- 1843.5.7. 아시아 첫 이민자가 미국에 도착한 달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5월을 아시아-태평양 문화유산의 달(APHM)로 지정(1992년)했다.
- 서울시는 도시외교 협력의 일환으로, 각국의 국경일 또는 기념일이나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‘서울특별시청사’ 외관 점등행사를 지원하고 있다.
- 한미 동맹 70주년, 조지아 독립 105주년, 인도네시아 독립 78주년 기념일 등 각 국가, 도시의 의미 있는 기념일은 물론,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응원과 반전 메시지를 담아 점등 행사를 진행했다.



-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은 “음악, 영화, 드라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인들, 특히 한국인들의 전 세계적인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.”라며, “서울시는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 이 점등 행사를 통해,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문화인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.”라고 밝혔다.